

합격기  
(2013년 제55회 사법시험 합격)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현 우

- 강릉고등학교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 재학 중
- 2013년 제55회 사법시험 합격

## I. 들어가며

제 55회 사법시험 합격한 이현우 라고 합니다. 각설하고, 주로 제가 수험과정에서 실제 겪었던 경험, 느꼈던 아쉬움을 통해 얻은, 수험과정에서 도움 될 만한 것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므로 참고하는 정도로 여기시면 될 듯합니다.

## II. 학습관련

### 1. 제1차시험

#### (1) 학교에서 수험과정

3학년 방학기간에 고시반에서 형법 신호진 기본강의, 금동흙 기본강의를 수강하였으나 형법은 강의를 모두 듣기는 했으나, 복습을 하지 못했고, 금동흙 강의는 중간에 수강을 포기하였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 여자친구와의 데이트, 학생회활동,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습에 집중할 수 없었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3학년 2학기까지 마치고, 신림동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학교에서 수험을 통해 합격하신 분들도 있지만, 주위 분위기를 잘 타고 학습에 집중하기 어려운 분들은 신림동에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2) 신림동에서 수험과정

##### (가) 강의, 교재의 선택

저는 2011년 3월부터 법학원 종합반에 등록을 하여, 민법은 김동진, 형법은 이용배, 헌법은 김유향 강의를, 선택법은 이승현 국제거래법을 선택하여 선택법을 제외하고 모두 실강으로 수강하였습니다.

교재는 주로 기본서를 보았고, 민법은 판례강의 때 김동진 기출문제의 종결과 3개년 판례가 지원림 교수님 교과서와 연동이 잘 되어있어 이 교재를 공부하면서 기본서 이해에 굉장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수험기간 중 가장 맘에 드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는 형법과 헌법은 보지 않았고, 진도별 모의고사 참여로 문제풀이를 대신 하였습니다. 기본3법 모두 진도별 모의고사를 막판에 돌릴까도 생각했으나, 민법은 진도문제가 너무 많고, 생각보다 기본서가 잘 읽혔고, 형법도 이용배 선생님의 신체계 형법이 가독성이 좋아서 이것들은 기본서를 끝까지 보았고, 헌법만 기본서가 추상적으로 다가와서 기본서 대신 진도 문제지를 보았습니다.

1차 시험결과 기본서 위주로 공부한 민법, 형법은 선방한 반면, 헌법은..... 결론적으로 기본서를 중심으로 막판까지 기본서 회독을 늘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선택법의 경우 국제거래법은 양이 적으므로 선택법 강의 기간에 1번 강의를 듣고 막판 1주일 전에 1독정도 하면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 (나) 예습, 복습의 문제

실강의 경우 학원만 4시간, 보강까지 하면 예습할 시간은 절대 나오지 않고, 복습도 버거우므로 철저히 복습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다만 진도별 모의고사의 경우 전혀 예습을 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예습도 하였으나, 예습은 시험범위 기본서 1독정도만 간단히 하였고, 당일 시험문제 중 틀린 것, 맞은 것 가리지 않고, 철저히 모두 복습

에 치중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풀이의 처음이자 마지막 과정이므로 철저한 문제파악은 이 때 마친다는 생각으로 복습하였습니다.

기본서 외의 판례집 모의고사 문제집 등의 복습과정에서 기본서와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지워서 철저하게 기본서 위주로 막판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양을 줄이는 것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 (다) 공부시간

처음엔 복습하기 위해 3시간 책상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서 민법 기본강의 끝날 때 까지는 하루에 3시간 4시간 정도 그날 배운 기본서만 읽었고, 점차 늘려나가 1차시험에는 평균 6시간 정도 학원제외하고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장소는 원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 공부시간이 잘 나오지 않아 2~30분 공부하고 쉬고 짧게 많이 쉬면서, 공부를 하여 원룸이 적합했고, 결과적으로 1년 동안 지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고시공부 적응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라) 기타

1차시험은 객관식 문제이므로 정확한 암기보다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의 암기를 핵심적 부분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원강의 수강이 2차시험보다 더욱 효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강의, 여름판례강의, 진도강의, 겨울판례강의, 마무리강의 모두 수강하였는데, 같은 강사의 강의를 반복적으로 듣다보니 점점 핵심위주로 추려서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좋았고, 시험 당일 지문 읽을 때 강사가 했던 말이 자주 컷가에 맴돌아 문제를 보다 수월하게 긴장도 덜하며 풀 수 있었던 것 같아 좋았습니다.

그리고 1차시험은 2차시험을 위한 전 단계에 불과하고, 진짜 공부는 2차시험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1차시험에서부터 무리하면 2차시험 공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원강의 수강을 빠지지 않는 것과 그 날 복습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충분한 휴식과 운동으로 체력유지가 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 2. 제2차시험

### (1) 강의와 교재의 선택

민법은 윤동환강사의 맥, 형법은 이용배강사의 맥과 이재상강사의 이케바, 헌법은 김유향300과 정희철 사례집, 민사소송법은 이창한강사의 통합민소와 사례집, 형사소송법은 정주형강사의 형사소송강의안, 최종정리형소, 사례집, 행정법은 정선균강사의 엑기스와 엑기스연습, 상법은 김혁봉강사의 신강과 사례집을 선택했습니다.

모의고사는 모두 같은 강사를 선택했으나, 상법은 3순환 때 김남훈강사님 모의고사를 풀었고, 형법은 이용배강사가 2차강의를 처음하므로 불안하여 이재상 2,3순환 모의고사문제만 구해 초안만 잡고 해설지만 보았습니다.

강의,교재 선택 시 추가자료 없는지, 책은 얇은지 중심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추가자료 정리에 신경쓰는 시간이 아깝고 7법을 모두 공부해야하므로 양이 적

은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 만족했으나, 특히 상법의 경우 김혁봉강사의 공백으로 김남훈강사를 추천합니다. 절대 대세인 상법신강으로 수업을 하고, 작년 3순환 모의고사도 올해 문제와 유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형법의 경우 1차 때 이용배강사를 수강했던 분들은 추천을 합니다. 기본서도 1차 책과 거의 같으므로 공부하기가 굉장히 수월하여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큼니다. 수업도 1차 때와 학설 판례를 갈게 설명하므로 편합니다.

### (2) 예비순환과정

이 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후회가 남는 기간입니다. 2번의 기회가 있다는 것과, 4개월의 짧은 시간으로는 정복하지 못할 2차시험의 공부량에 압도되어 쉽게 날리는 시기인 것 같고, 저도 그러하였습니다.

저의 경우는 가채점 점수가 어느정도 나와 1차와 같이 학원예비순환 실강을 수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만큼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일단 예비라는 순환의 특성상 강의 횟수가 길어 수업이 늘었고, 수강 분위기도 좋지 않아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후사법은 작년 1순환 강의를 기본3법 3순환 시작 전까지 동영상으로 빠르게 두 번 듣고, 기본3법은 3순환강의를 수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순환 강의가 가장 콤팩트하고 두 번 듣는 것은 2차시험의 생소함에 익숙해지고자 빠르게 한번,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 또 한 번 듣는 것으로 초시시험 칠 때 뭐라도 알고 쓸 수 있게, 재시 때의 1순환 때 보다 수월

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후사법은 모의고사를 직접 안 써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동차를 노리더라도 후사법은 까다롭게 나오지 않고 점수도 후하기 때문에 2번 강의를 수강하여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생각되고, 이해만 어느정도되면 후사법은 어떻게든 답안지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본3법의 경우 3순환이라고 짐작하지 말고 모의고사를 직접 써보고, 강평을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시 때는 3순환 때 강평을 들을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미리 듣는 장점도 있고, 1차 합격할 정도면 오히려 재시생들보다 기본3법의 이해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수강에 어려움은 없고 매일시험을 보므로 긴장감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3) 1순환과정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초시시험은 잊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때 부터는 학원모의고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례집을 추가적으로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례집을 꼼꼼히 이해하여 푸는 것을 목적이 아닌, 2차시험은 어떻게 출제되는지 오늘 배운 내용 중 어떻게 시험에 나올지,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어느 부분은 나오지 않는지 체크하기 위하여 읽는 것입니다. 불의타를 제외하고는 사례집에 없는 부분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고, 나머지는 학원 모의고사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2차시험도 기본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서 복습을 끝낸 후 사례집을 보

고, 사례집의 특성상 배우지 않은 부분도 섞여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은 기본서에 체크만 해두고 넘어갑니다.

이 때부터는 하루에 학원을 제외 7~8시간으로 또는 그 이상으로 자연스럽게 공부시간이 늘어갈 것입니다.

#### (4) 2순환과정

GS나 SW나 갈등되는 시기인데 저는 GS를 들었으나 SW를 추천합니다. 2차 시험은 1차시험과는 달리 정확한 이해와 암기를 통한 내 것으로 만들어 써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책 읽는 시간과 혼자 학습할 시간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W강의로 매일 모의고사를 풀며 3순환에 대비하며, 짧은 강의시간으로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만 기본3법은 아마 SW/GS합반 일 것인데, 헌법은 수강하되, 민, 형법의 경우 실력이 어느정도 쌓였다고 생각되면 모의고사만 보는 것이 수험생들의 큰 흐름으로 보입니다.

#### (5) 3순환과정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매일 시험을 보는데 범위가 엄청나므로 이 때만큼은 연습위주로 공부합니다. 한 번 진도가 밀리면 따라갈 수 없으므로 진도 밀리지 않게 연습하는데 주력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기본서만이라도 빠르게라도 한번은 읽어야 합니다. 연습시간 확보를 위하여 저는 모의고사만 보았고 강평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학원수업을 듣지 않으므로 공부시간은 10시간을 넘었던 것 같고, 그래야 진도가 밀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가지 제가 쓴 방법인데, 보통 3순환은 9회시험을 보는데 저는 모두 시험치는 것이 아닌 8회시험 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정말 힘든 하루는 시험은 보지 않고, 해설지만 읽었습니다. 2순환 때 GS 강의를 들어 모의고사를 자주보지 않았고, 체력적으로 힘들어 결정한 저의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순환과정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매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미친 순환과정입니다. 한 번 포기하면 끝입니다.

#### (6) 4순환과정 및 막판정리

4순환과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3순환까지의 문제풀이 훈련으로 족하고 암기에 치중해야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일주일에 2~3회 스테디를 만들어 기본3법만 5개년 기출문제를 풀거나, 목차만 잡아보았습니다.

막판 정리는 주로 4-2-1을 주로 하는데 저는 책을 빨리 읽지 못하여 기본3법 3순환기간부터 형법기간에는 형사소송법, 헌법기간에 행정법, 민법기간에 상법, 민소법 이런식으로 막판정리를 일찍 시작하였고, 3순환 끝난 이후부터는 35일 정도 남았던 것 같은데 헌법은 300을 매일 조금씩 외우고 나머지과목들을 분배하여 기본서만 읽었던 것 같습니다.

#### (7) 시험기간

다음 날 볼 과목들을 눈에 바르고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으나, 허리가 너무 아팠던 관계로 한 의원을 가거나 사우나를 가는 등 컨디션

관리에 신경을 썼습니다. 체력이 된다면 눈에 바르는 것이 좋을 것이나, 시험4시간 보고 돌아오면 정말 힘들기 때문에 다음 날 시험당시 집중력을 위하여 컨디션을 조절하며 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바르지 않으면 시험당일 날 기억이 안 날까봐 불안할 것이지만, 정말로 시험당시에 어떻게든 기억나고 써지게 됩니다. 그동안의 노력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8) 기타 공부방법

사례집의 경우, 1순환 이후 거의 안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요새 추세가 논점추출이 아닌 논점제시 후 방향을 설정해주므로 기본서 95% 사례집 5%정도가 적당하고 다만, 형법은 논점추출이 중요하므로 사례집을 50%이상 봐야합니다.

모의고사 문제는 버리지 말고 당일 문제를 풀고 기본서에 몇 순환, 몇 회에 나왔다고 체크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본서를 읽을 때 어떻게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는지 떠올리며 공부하고 떠오르지 않으면 해당 문제를 찾아보는 식으로 공부하면 어떻게 출제될지 예상하며, 효율적으로 강약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강약조절과 관련, 2차시험은 절대량이 워낙 많으므로 반드시 필요한데, 강의 생략 부분들은 제외하고 모두 보되,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던 부분,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꼼꼼하게 모든 부분을 보되, 특별히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쟁점 같은 경우에는 문제되는 쟁점의 학/판/검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정도로 강약조절을 하며 공부하면, 후시

나 모를 불의타라고 하는 것들에 대비하며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제55회 사법시험의 경우 형사소송법 2문을 제외하고 불의타라고 여겨졌던 상법 마지막 문제, 민사소송법 2문 등의 경우도 간단히 대비만 해두었더라도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런 문제들은 무난히만 써도 점수가 정말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목차 잡는 것 관련하여, 저는 목차를 잡지 않고 어느정도 구상만 하고 답안지를 채워나갔습니다. 대부분 수험생들은 시험시간이 모자라고, 요즘에는 20점 이하로 출제되므로 목차구성의 중요성은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관리가 잘되는 분들은 목차를 잡고 쓰는 것이 좋겠지요.

공부장소와 관련, 예비순환까지는 1차 때와 같이 집에서 하였고, 1순환부터는 독서실에 다녔고, 2순환 때는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다시 집에서 3순환을 위해 체력을 비축하였고, 3순환부터 시험1주일 전까지는 관리형 독서실을 다녔고, 1주일 전에는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등 공부환경을 바꾸어 분위기 전환에 신경을 썼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루함을 미약하게나마 덜 느끼며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 Ⅲ. 학습 외 관련

#### 1. 체력 및 건강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1차공부 시작부터 헬스를 등록하여 운동했는데, 같이 운동했던 형들에게 큰 고마움을 느낍니다. 재시치기 전 1달 전까지 1주에

3~4회 정도씩 헬스를 꾸준히 다녔으나 시험보기 직전 까지 운동을 계속할 결 후회합니다. 공부시간 확보를 위해 그만 두었으나 딱히 그 운동시간 대신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니다.

수험기간 중 허리디스크 때문에 한의원을 가지 않으면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한의원 가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습니니다. 무리하여 며칠 공부 못하는 것보다 매일 몇 시간씩 건강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멘탈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3순환 짬 불안감에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니다. 허리 때문에 남들보다 공부시간이 항상 부족하고 암기도 잘 안된다고 생각하여 초조하고 불안하여 밤에 누우면 잠이 오지 않아 고생했습니다. 약국에서 수면유도제를 이용했는데 효능도 없고, 다음 날 머리가 멍해져서 집중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계속 잠이 항상 부족하여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는데, 한의원에서 한방 수면제를 추천받고는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한약재로만 만들어 내성이 없고 효능도 좋았습니다. 혹시나 불면증으로 고생하신다면 추천해드립니다.

#### 2. 생활관련

사법시험은 학원 커리큘럼이 잘 되어 있고, 혼자서 책을 읽을 시간도 부족하므로 스터디를 구성하여 인간관계에 시간을 빼앗기는 것보다는 혼자가 되는 것이 좋았습니다. 다만 막판에 정리와 기출문제를 풀 때에는 마음 맞는 친구들과 스터디를 하여 최소화 하였습니다. 소심하며 작은 것에 신경쓰는 성격이라 이러

한 방법이 도움 되었습니다.

다만 우울증이 올 것만 같아 가끔 편한 친구들과 간단히 술 한잔, 커피 한잔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게임하거나, 당구를 치는 등 기분전환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 술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내내 공부할 각오하시고 주로 토요일 저녁이나, 안되면 일요일 저녁에 공부를 다 끝내놓고, 빠르게 1-2시간 먹고, 취하고, 자고, 다음날에 조금 늦게 공부를 시작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일주일 공부 다 끝냈으니 뿌듯하고, 술 먹으니 스트레스도 풀리고, 일상에 지장을 았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 부장검사이신 연수원 지도교수님께서도 이런 방법으로 술과 업무를 병행하셨다고 하셔서 놀랐습니다.

이성친구와 관련, 수험가 정설대로 있으면 유지하도록, 없으면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차시험 2달을 남기고 오래만난 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 공부에 집중하기도 어려웠을뿐더러 고독감과 우울함이 배가 되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1순환 때 너무 외로워서 여자친구를 만들어 봤으나, 역시 새로운 감정에 휩쓸리고, 공부외적으로 시간을 많이 쓰게되어 결국 수험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 3. 신앙생활

천주교 집안이라 매주 삼성산 성당에 다녔습니다. 항상 불안한 기간에 기뻐할 곳이 있다는 것에 안정감을 얻어 좋았습니다. 공부시간을 빼긴다는 부정적인 면보다는 각자의 종교생활을 통하여 마음에 안정을 얻어 수험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면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 IV. 나오며

쭉 글을 쓰다보니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과도한 욕심보다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끝까지 일반적인 커리큘럼만 따라가고자 했던 마음가짐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법시험은 수험생들에게 계속 포기를 강요하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글쓰는 재주가 없어 두서없이 생각나는대로 쓰게 되었습니다. 도움 될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준비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준 사랑하는 분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테니 여기선 생략할게요. 끝으로 이런 기회를 마련해주신 이창현 교수님, 고시계 편집국장님, 고시반 김남길 실장님 감사합니다.